

<해외 현지 맞춤형 한국어문화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토론문

견나과 분피숫신(탐마삿대학교)

2022년 현재 태국 내 많은 대학에 한국어·한국학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14개 대학에 학부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6개 대학에 학부 부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관련한 학부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14개 대학 중 13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라는 명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학을 개설한 곳으로는 송클라대학교가 있으나, 전 해당 교육과정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탐마삿대학교의 경우에는 태국 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국립 대학교이며 1934년 사회과학 대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2012년에 한국학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고, 2018년에는 부전공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태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는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들의 내용들은 최신의 논문과 교육 경향에 맞춘 교재이지만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학습양이나 내용이, 하루 네 시간, 일주일 다섯 번, 일 년에 4학기의 과정에 적합한 교재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과 발화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환경에 들어맞는 교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기가 힘듭니다. 이에 각국의 교육 상황에 맞는 교재의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공, 부전공, 선택과정등과 같이 서로 다른 학습 목표와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교재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른 한국어 교육 상황이 각국마다 달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대학 및 대학원등에서 배우는 고등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파견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등에서 내용과 수준이 달라야 함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분화된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국마다 특색이 있는 발음이나 어순 대조 등과 같은 차이점 및 양쪽 언어의 공통점등을 확실히 제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문화교육에서는 언어적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의 교환이 아니라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간에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면에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단지 한국말을 배워가는 것을 넘어 한국문화와 정서속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재 및 문화 교육에 대한 이론서를 중심으로 이들이 얼마나 학습자의 현황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논의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문화교육 수업의 대부분은 대중문화나 대중매체를 통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일상(전통)문화 이해 및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체험 장소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해 보면, 대중문화나 매체를 통한 프로그램보다는 직접 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센터 등에서 정례적으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각 학습 기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채널의 확보를 통해 교류와 정보교환이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유튜브 활용에 대해 덧붙이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및 온라인 시장이 활발해질 당시 유튜브는 대표적인 교육적 수단으로의 가치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유튜브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장점을 내세워 언어학습의 본 교재로써 널리 사용될 뿐만 아니라, 연습 또는 복습을 위한 효과적인 부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